

- 본문 말씀 | 창세기 3장 14-19절
- 결단 찬양 |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기준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았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설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지칭할 때 뜻은 서로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과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분명 같은 물건일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상’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선물’이라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상과 선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어도, 꼭 무엇을 잘해야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사람의 배려로 인해 얻는 것을 의미해요.

1

절 취 선

그렇다면 상을 받을 때와 선물을 받을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받은 사람의 반응일 거예요. 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당연히 받은 거야’, ‘내가 가진 능력이 탁월하니까 상을 받은 거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상이기에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요.

그러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알겠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거저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상대방을 자랑하게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에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선물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존재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한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특권과 또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어요.

2

그러나 선을 넘은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졌어요. 인간의 교만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모두가 자신의 위대함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버린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 벌을 받고, 그들을 유혹한 뱀 역시 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긴 결과는 매우 참담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6-17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6-17).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경제적인 빈곤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탐스럽고 싱그럽던 온갖 나무와 열매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었고, 그 자리는 이전에 볼 수 없던 가시덤불이 차지하고 말았어요. 먹을 수 없는 엉겅퀴가 자라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막막하게 만들었지요.

이전에 느껴 본 적 없는 배고픔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곁에서는 느낀 적 없던 외로움, 즉 영혼의 굶주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에게는 쉽게 다치고 망가지는 연약한 몸과 절망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와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놓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이 찾아 왔어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경험해야만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출산의 고통은 하와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또한 아담도 동일한 상황에 놓였어요. 자신의 온몸이 닳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처럼 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절망에 놓인 존재이며,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붙여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특별한 선물을 거절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안내 소리가 울려 퍼져, 패배감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과 같아요. 이미 불합격 통지를 받은 우리가 평평 울고 있을 때 ‘이제 곧 합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았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거절했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짓밟았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일 때에도 나를 위해 새로운 약속 곧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했기에,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인가요? 아니면 '선물'인가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성적을, 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멋진 외모,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재능 등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각자 자랑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곧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선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해요.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이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길 바랄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해요. 청소년부 앱 QT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역사를 입술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